

機張 長安寺 大雄殿의 造營記文과 建築形式에 관한 연구

서 치 상

(부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주제어 : 기장 장안사, 대웅전, 조영기문, 목서명, 상량문, 건립연대, 변개시점

1. 머리말

長安寺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梵魚寺의 말사로서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98-2번지 佛光山 산록에 위치한다. 주불전인 대웅전은 임진왜란 직후에 복구된 몇 안 되는 동남해안지역 사찰 불전 중 하나이다. 이 사찰은 문무왕 13년(서기 673년) 元曉 대사가 창건한 고찰이지만, 지금은 대웅전 등 6개 건물만 유지되는 정도이다. 동남해안지역의 여타 사찰처럼 임진왜란 때 완전히 파괴된 후 그 일부만 복구되었기 때문이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에 팔작지붕을 올린 다포식 건물이다. 인근의 범어사 대웅전 등에 비견될 만큼 장려한 외관과 고식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사찰 안팎에서는 지금의 건물이 임진왜란 직후에 복구될 때의 모습 그대로라고 주장해 왔다. 증빙할 직접적인 사료는 없지만, 당대의 巨儒로서 이곳 출신인 金邦翰(1635-1698)의 「長安寺大雄殿記」에 ‘僧 元正이 順治 甲午年(효종 5년, 1654)에 大雄殿

복구의 원을 세워 丁酉年(효종 8년, 1657)에 경영했다¹⁾는 기록이라든지, 이후 대규모 변개가 초래될 만 한 개, 보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근거 말고는 건립연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건축사적으로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 제37호(1995. 12. 15)로 지정되는 데 그쳤으며, 이렇다 할 실측조사 없이 방치되어 왔다. 그러다가 최근 필자 등에 의해서 실측조사가 이뤄지고, 이와 함께 천장 내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서 종도리 밑면에 적힌 상량문 등 4건의 목서명이 발굴되었다.

건물에 대한 실측조사는 2008년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평면도와 입면도 및 공포 상세도가 작성되었다. 조영기문에 대한 발굴조사는 2009년 6월 17일과 2009년 7월 14, 15일 등 사흘에 걸쳐 이뤄졌다. 당시 발견된 조영기문은 <順治十三年記 宗道里 墨書銘>(孝宗 8년, 1657) 1건 등 모두 4건의 墨書銘이었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1-AL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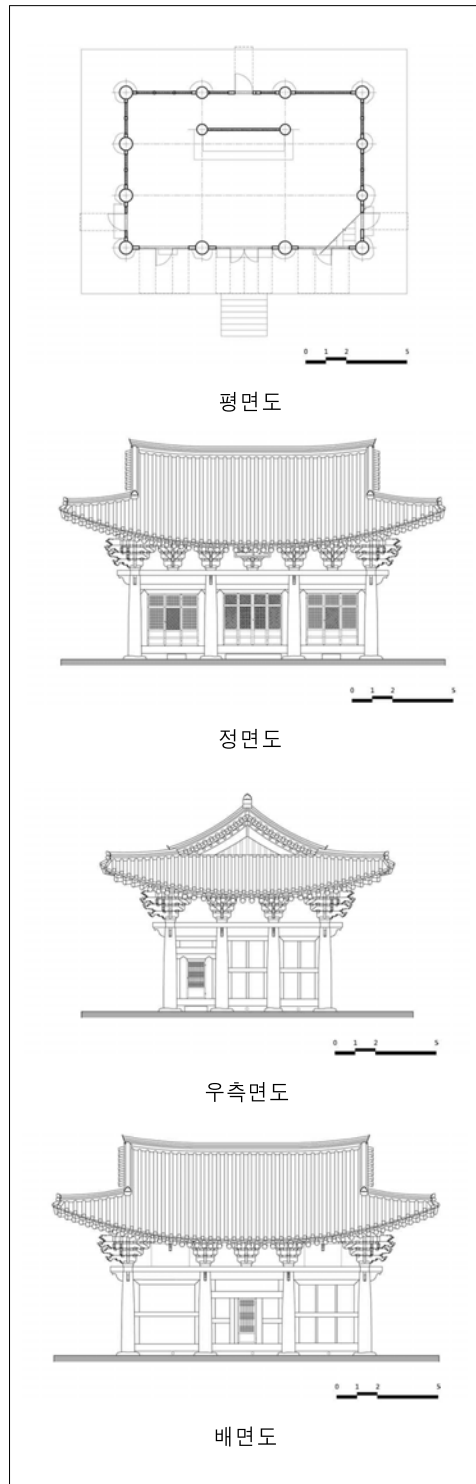
1) 金邦翰, 「鰲亭先生逸稿」(1911)의 「長安寺大雄殿記」(1660년)



<그림 1> 장안사 대웅전 사진

건축현황 및 조영기문의 조사는 그간 의문으로 남아 있던 건립연대와 조선 후기에 설치되었을 공포 부분 등의 변개 상황을 점검 수 있게 해 주었다. 즉, 주요 구조부재와 벽선, 문틀 등은 복구된 이래 변함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건물은 주고가 주간에 비해서 대단히 크고, 부재 치수도 크다. 또한 제비추리맞춤과 같은 오래 전 기법도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포의 쇄서 형상이 임진왜란 직후 복구될 시점보다 한참 이후의 형식이고, 정면과 측면, 배면의 포작이 각기 다르다. 이후 어느 시점엔가 공포 부분이 변개된 증거이다. 즉, 보간포를 전면 주간에 1구씩 없었지만, 좌, 우측면에는 두지 않았으며, 배면에는 어칸에만 1구를 없앴다. 이처럼 3면의 공포구성이 다른 이례적인 형상 때문에 20세기 건물로 보기도 했다. 어쨌든 이 부분의 변개 원인과 그 시점에 대한 추론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장안사 대웅전의 조영기문을 바탕으로 현재 건물의 건립연대와 함께 공포 부분 등의 변개시점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중창 이래의 조영연혁에 대해서는 <順治十三年記 宗道里 墨書銘>(孝宗 8년, 1657), <乾隆八年記 宗道里 받침장허 墨書銘>(英祖 20년, 1744), <佛紀二九百七十四年三月日記 緣化秩>(1947년), 그리고 <佛紀二



<그림 2> 장안사 대웅전(저자 실측)

九七八年記 緣化秩>(1951년) 등 4건의 목서명을 바탕으로 개, 보수 시기별 공사 규모와 성격을 정리한다. 이어서 실측조사 및 인근 지역의 범어사와 雲水寺²⁾ 등의 불전건물 실측자료에 실린 間架의 營造尺 대조를 통해서 현재 건물의 변개 정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장안사 대웅전의 건립연대 및 건축형식 변개시점의 규명을 통해서 건축사적 및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발굴하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서는 임진왜란 직후에 건립된 동남해안지역 사찰 불전건물의 건축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리라 본다.

인조 16년(1638) 태의대사가 증건했다. 이어서 효종 5년(1654) 원정, 학능, 충목 스님이 대웅전을 증건했다.

근래에는 1948년 각현 스님이 여러 건물들을 수리했다. 또한 1987년에는 종각을 새로 세우고 요사를 증창했으며, 대웅전을 변화하는 등 지금의 가람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대웅전은 1974년 12월 28일 경상남도 지정 기념물 제118호로 지정되었다. 건립연대는 분명하지 않지만 오래 된 목조건축이 드문 동남해안지역에서의 희소성이 인정된 것이다. 이후 1995년 3월 1일 이 지역이 부산광역시로

[표 1] 장안사 대웅전과 인근 사찰 주불전의 입면비례 및 기둥 치수 비교

구분	중창 연도	주간과 주교 치수비(주간치수 : 주교치수)						평주 치수	
		정면·배면			좌측면·우측면			주교 (곡척)	상부 주경
		어칸	협칸	전체	어칸	협칸	전체		
장안사 대웅전	1658	1:1.07	1:1.16	1:0.38	1:1.72	1:1.74	1:0.58	4,390 (1.03)	450
범어사 대웅전	1658	1:0.76	1:0.99	1:0.30	1:0.65	1:1.53	1:0.35	3,453 (1.04)	492
운수사 대웅전	1683	1:0.91	1:1.13	1:0.35	1:0.94	1:1.66	1:0.44	2,670 (1.10)	350

2. 가람의 조영연혁

그간 사찰 안팎에서 전해지던 장안사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 문무왕 13년(673)에 원효대사가 뒤편 산록의 擲板庵과 함께 창건하여 雙磎寺라 했다. 신라 애장왕(809년)때 장안사라 고쳤다. 이후 임진왜란 직전까지 사정은 알 수 없다.

선조 25년(1592)에 발발한 임진왜란 때 왜병의 방화로 완전히 가람은 완전히 소실된 것을 인조 8년(1631)에 의월 대사가 증창하고,

편입되면서 대웅전은 부산시 기념물 37호로 재 지정되었다. 다만 유형문화재가 아닌 기념물로 잘못 지정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초기로서 문화재의 분류체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았던 때문일 것이다.

현재 사찰 경내에는 대웅전을 비롯해서 명부전, 응진전, 산신각, 요사채 등 6개 건물이 들어서 있다.

3. 대웅전의 건축현황

금번 필자 등이 실시한 대웅전의 현황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단은 막돌 호튼층으로 쌓았는데, 정면 중앙부에 시멘트 몰탈로 마감한 8단 계단이 조

2) 雲水寺는 부산시 사상구 모라 3동 5번지에 있는 고찰로서 이곳의 대웅전은 1660년에 복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4 논문

성되어 중정 지반과 약 2m 정도의 레벨 차를 나타낸다. 기단 상부는 시멘트 몰탈로 마감했다. 초석은 큰 막돌을 이용해서 덤빙주초방식으로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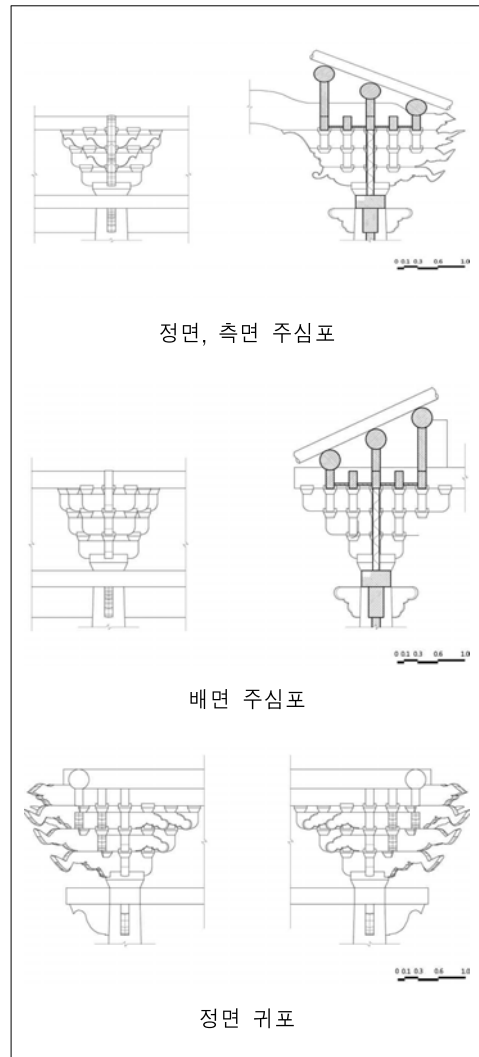
정면 3칸, 측면 3칸 건물로서, 정면과 배면의 주간치수는 어칸이 4,100mm로 약간 더 크고, 좌, 우 협칸은 각기 3,750mm 및 3,800mm으로 거의 같다. 좌, 우 협칸의 치수가 약간 차이 나는 것은 실측 오차 또는 문선의 크기 차이 때문인 것 같다. 또한 좌, 우 측면은 제 1, 2, 3열이 각각 2,550mm, 2,550mm 및 2,530mm로 거의 동일하다. 20mm에 불과한 치수의 차이도 실측오차 등에서 비롯된다고 보면 공사 당시에 정확한 영조척이 적용되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내부에는 불단이 놓이는 좌우 단부에 고주 2개를 세웠다. 이 고주들의 주경은 평주에 비해서 오히려 작다. 평주는 4면을 따라 같은 주고의 10개를 세웠다. 이 평주들의 주경은, 정면 평주 4개, 좌측면 평주 3개 및 우측 3열 우주가 같은 치수이고, 나머지 평주 4개는 약간 작다. 평주들은 모두 원형기둥이며, 위로 갈수록 주경이 줄어드는 민흘림을 갖고 있다.

주고는 4.4m로서 주경의 7배가 넘는다. 여기다가 운두가 높은 공포를 올려서 구배가 급한 팔작지붕을 올린 탓에 건물은 수직선이 강조되고 고준한 느낌을 준다.

창호는 정면 어칸에 4분합 띠살문을, 좌우 협칸에는 3분합 띠살문을 달고, 배면 어칸에는 교살로 된 외여닫이 띠살문을 달았다. 좌, 우 측면의 첫째 칸에도 각각 외여닫이 띠살문을 달았다.

공포는 내, 외 3출목의 다포식으로 짜서 그 위에 겹처마의 팔작지붕을 받게 했다. 다만 특이하게도 각 면의 공포 구성을 다르게 했다. 예컨대 보간포를 정면 주간에만 1구씩 짤 반



<그림 3> 대웅전 공포 실측도(저자 실측)

면, 배면 좌우 협칸에는 보간포를 놓지 않고 어칸에만 1구를 놓았는데, 형상도 정면의 것과 다르다. 또한 좌, 우측면의 주간에는 보간포를 짜지 않는 등 3면의 공포구성이 각기 다르게 구성했다.

이러한 공포 구성은 임진왜란 직후에 복구된 사찰 건물에서 간혹 보인다. 즉, 당시의 어려운 조영여건 때문에 전면과 후면을 다르게 구성하거나, 좌측면과 우측면의 공포를 생략했다는 것이다.³⁾ 실제로 機張과 같은 동남해안

지역은 임진왜란 때 참혹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이 건물은 궁핍한 사찰 사정으로 개, 보수 때 건물 전면은 제대로 꾸몄지만,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면은 간소하게 처리한 사례라 할 수 있다.⁴⁾

공포의 형상을 보면, 정면 주심포와 보간포, 좌, 우측면의 주심포는 내 2출목, 외 2출목의 5포(실제는 6포)로 똑같은 형상으로 짰다. 제공은 정면에서는 초제공과 2제공을 양서형으로 만들었으나 그 뿌리가 짧고, 아래로 굽어져서는 곧바로 위로 치켜드는 형상이다. 3제공도 두 갈래로 뿌리가 빠져 나와 있는 등 특이한 형상이다. 내부에서는 교두형을 겹쳐서 만들지 않고 한 몸체 모양의 보아지 형식으로 만들었다. 이는 아마도 다포식에 익공식을 가미한 때문인 것 같다. 주심첨차는 일반적인 수법인 첨차 단부를 수직으로 절단하고 아래를 교두형으로 만들었으나 3개의 행공첨차는 사절하고 그 아래를 S자 형상으로 조각해서 마치 조선후기 익공식이나 주심포식의 경우와 흡사한 모습으로 만들었다.

반면에 배면 어칸의 보간포는 전면과 달리 살미의 끝을 쇠서로 뽑지 않고 주심첨차와 같은 교두형으로 만들었다. 그런 탓에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통일된 형상을 보여주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중창 이래의 개, 보수로 인한 결과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4. 墨書銘으로 본 공사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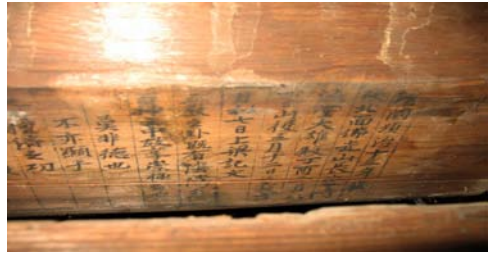
4-1. 順治十三年記 종도리 墨書銘

이 기문은 2009년 7월 14~15일에 걸쳐 발

3)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p.274, 2009.

4) 조선 후기 동래지역의 조영여건에 대해서는 徐致祥, 「朝鮮後期 梵魚寺 僧人工匠의 東萊地域 造營活動」,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건축역사연구 Vol 35, 2003. 9 등에서 참고된다.

굴되었다. 종도리 하부에 너비 12cm, 길이 600cm로 편평하게 깎은 면 위에 墨書한 상량문이다. 조선시대 上樑文은 종도리 하부에 직접 墨書하는 경우, 그리고 한지에 붓으로 글자를 적어서 종도리 하부에 흙을 파 넣은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다. 조선시대 이 지역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함께 보이는데 장안사 대웅전은 전자에 해당한다.



<그림 4> 順治十三年記 종도리 목서명

원문의 완전한 채록은 종도리 하부를 받치는 받침장허를 걷어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조사 당시로는 받침장허의 철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래서 10cm 정도 아래로 벌린 틈새로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채록하는 방법을 택했다.

묵서된 상량문에는 총 1,184자에 달하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45자는 부재의 박락 탓에 사진 만으로 판독이 불가능하지만 건립연대 등의 확인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다음은 전문을 채록한 것이다.

清國順治十三年 機張北面佛光山長安寺法堂大雄殿 丁酉二月初四日山役 五月十二日立柱 六月初七日上樑記文

□教之外既有陰□□仁 百神之中故享崇極□□
 莫非德也 不亦顯乎 是□檀濟之功 □□妥靈之殿 無爲而化何□蜀山之□ 不日以成語煩魏臺之壯 石榻夜永隱鐘磬之聲 松檀風清烟烟月露之映 紗窓啓而紫霞在戶 綵屏開而白雲臨軒

山高水長千百其世 天尊地厚億萬斯年 遂成短唱 用助脩梁
 拋梁東 迥路滄海浩無窮 扶葉千丈分明在 □飛雲窓日紅 拋梁西 秋風孤鷺落霞齊 雲深迓僻清幽地 淇樹層層天欲低 拋梁南 演漾綠瀟白芷涵 洞壑周圍如楫□ 渭魚鯽鯉戲清潭 拋梁北 □□□嵐天一色 替替崆峒千萬重 清風窓下望 □極 拋梁上 鳳凰來集倚仙□ 昭明所在燭群徹 盡與芬往除□席 拋梁下 群生同□□生化 燒看稽首禮虔誠 禍福吉凶不差訝 伏願上梁之後 棋花不老 瑞日長明 憑于是倚于是母墜仁 生於斯長於斯不替禮 民之德 佛之誠
 祝願秩 供養大施主 朴秀兩主 成造大施主 通政嘉善大夫金億文兩主 布施大施主 通政大夫崔春梅兩主 供養大施 幼學金起龍兩位 布施施主 崔應生兩主 布施大施主 參奉洪仁善兩主 供養施主 金□□兩主 材木大施主 安命承兩主 供養施主 今伊保休 布施施主 金月生兩主 布施施主 太安比丘 食鼎大施主 金白軒兩主 施主 金億只兩主 布施施主 □里斤保休 供養施主 金永男兩主 許成敏靈駕 供養 雲海比丘 布施施主 通政大夫李永伯兩主 施主 辛葉兩主 金芻金兩主 李山好兩主 閑戒生兩主 吳棒兩主 金奂立兩主 金仁伯兩主 鐵物大施主 朴氏甘眞兩主 鐵物施主 起必知兩主 金仁起兩主 尹禮信兩主 裴千補兩主 施主 鄭尙卜兩主 金須唱兩主 金□吉兩主 金忠敏兩主 高應昶兩主 柳承吉兩主 崔福龍兩主 施主 自湖比丘
 緣化秩 指示 杜軒比丘 都辺首 信行比丘 左辺首 知幻比丘 右辺首 明鑑比丘 副辺首 上性比丘 德日比丘 德明比丘 聖昶比丘 雪玄比丘 □□比丘 尙式比丘 雪僅比丘 僅宗比丘 德□比丘 國玄比丘 日澄比丘 覺文比丘 大玄比丘 呂默比丘
 供養主秩 禪寬比丘 淨玄比丘 太允比丘 尙梅比丘 別座 忠默比丘
 寺內秩 前往持 妙罔比丘 掌額 法俊比丘 彦湖比丘 上明比丘 敬庵比丘 妙淨比丘 法堂蓋瓦化主 學能比丘 熙印比丘 曇玄比丘 祖雄比丘

机網 敬□比丘 德明比丘 靈覺比丘 樺林比丘 先頭□ 哲玄比丘 先頭□ 處益比丘 先頭 印岑比丘 先頭 法能比丘 先頭 幸□比丘 先頭 雙倫比丘 先頭 □敏比丘 先頭 瑞仁比丘 先頭 瑞方比丘 先頭 靈熙比丘 祖淳比丘 僅翟比丘 妙天比丘 靈惠比丘 太俊比丘 灵昶比丘 尙嚴比丘 尙吟比丘 清卞比丘 樺竺比丘 應□比丘 少者□ 雲□ 戒軒 是先 海云 立昌 四峯 樺先 忠敏 太玄 四明 戒鳴 大信 敬□ 明察 順旭 梅楊 巴生 前首僧 思淨比丘 雪熙比丘 時首僧 瑞方比丘 三網 禪竺比丘
 大化士秩 元正比丘 雙日比丘 □蓮比丘 □均比丘 鐵物化主 玄夢比丘 助緣化主 金戒云兩主 來往僧 太寶比丘 助緣化 李山□□□ 自卜馬功德來往□□比丘 前化主 學寶比丘 同種善根以成□□

여기서 보듯이 상량문은 序文, 本文, 祝願秩, 緣化秩, 供養主秩, 寺內秩, 大化士秩 순으로 구성된다. 먼저 서문에서는 건립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청나라 순치 13년 기장군 북면 불광산 장안사 법당 대웅전은 정유년 2월 4일에 산역을 하고, 5월 12일에 기둥을 세우고, 6월 7일에 들보를 올리고 글을 기록했다”는 부분이다. 향간에 떠돌던 ‘순치 13년, 즉 현종 7년(1656)’이란 건립연대가 적힌 1차 사료가 발굴되었다. 보다 정확한 연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검토될 것이다.

본문은 拋梁東, 拋梁西, 拋梁南, 拋梁北, 拋梁上, 拋梁下 순의 통상적인 상량문 형식으로 구성된다. 먼저 祝願秩에는 사찰 안팎의 시주자들이 기록된다. 신도의 兩主, 즉 부부의 이름들로서 모두 72명에 달한다. 이들은 成造시주, 布施시주, 시주, 供養시주, 材木시주, 鐵物시주, 食鼎施主 등 주로 돈이나 건축자재를 헌납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고 했다. 緣化秩에는 공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된다. 가장 우두머리인 指示 1명, 도편수 1명, 좌편수 1명, 우편수 1

명, 부편수 15명 등 19명으로서 민간공장은 한 명도 없고, 모두 승인공장들이다. 供養主秩에는 공역자들에 대한 급량을 맡은 5명의 승려가 기록된다. 寺內秩에는 사찰의 임직을 지닌 승려들과 함께 조역군 우두머리인 先頭 21명과 蓋瓦化主 4명이 기록된다. 大化土秩에는 공사비를 화입한 이들을 기록했는데, 大化土, 鐵物화주, 助緣化 등 10명의 이름이 기록된다.

4-2. 乾隆八年記 종도리 받침장혀 墨書銘

이 기문은 2009년 6월 17일 조사 때 발견된 墨書銘이다. 이례적으로 종도리 받침장혀의 옆면에 큰 글씨로 적혀 있다.



<그림 5> 乾隆八年記 종도리 받침장혀 墨書銘

乾隆八年 歲在甲子四月初八日 □椽重修同苦錄 大木 比丘詰弘 金貴碩 金世興 高尚丁 時僧統 嘉善應信 時和尚 嘉善平學 前僧統 通政建學 前和尚 通政清眼 前和尚 文善 前和尚 通政義心 時持殿 性聰 別座 通政宥侃 供養主 尚屹 善益 世輝 都監 通政詰悟 典座 該學 持事 若初 首僧 石學 三室 雲瑞 上房 義淨

문장은 序文과 同苦錄으로 구성되는데, 글자 수는 모두 121자에 불과하다. 상량문처럼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공사의 증표를 간단하게 남길 요량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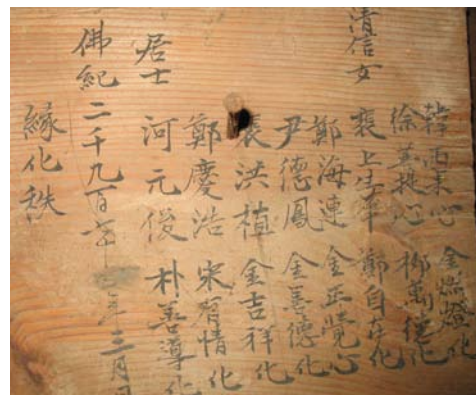
그러나 짧은 글임에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서문의 ‘乾隆 8년 갑자년 4월 초8일 □椽 수리 때의 同苦錄’이란 부분이다. 영조 20년(1744) 갑자 4월 초 8일에 어떤 종류의 서까래⁵⁾를 수리했다는 내용이다.

이어서 목수 4명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승인공장이 1명, 민간공장이 3명이다. 공장의 수가 4명에 불과한 데서 대대적인 공사가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건물의 구조부재나 가구부재는 그대로 두고 서까래를 비롯한 지붕부분만을 교체하는 소규모 공사였던 것이다.

4-3. 佛紀二千九百七十四年三月日記 緣化秩

이 기문은 20×30cm 크기의 목판에 쓴 墨書銘으로서 건물 우측 종도리 받침장혀의 측면에 못으로 박혀져 있는 간략한 문건이다.



<그림 6> 佛紀二千九百七十四年三月日記 墨書銘

緣化秩 佛紀二千九百七十四年三月日 居士 河元俊 朴善導化 鄭慶浩 宋有情化 裴洪植 金吉祥化 尹德鳳 金善德化 鄭海連 金正覺心 清信女 裴上生華 鄭自在華 徐菩提心 柳萬德華 韓西來心 金燃燈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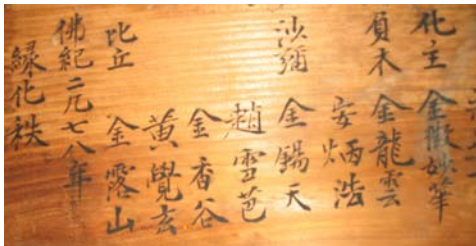
여기에 적힌 ‘불기 2974년’은 서기 1947년에

5)확인이 어려운 글자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어떤 서까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해당하며, 모두 81자가 적혀 있다. 시주자의 이름만 적혀 있고, 寺內秩이나 工匠秩 등이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건축공사 기록으로 보기는 어렵고, 불상 조성이나 기타 불사를 거행하면서 시주자의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된다.

4-4. 佛紀二九七八年記 緣化秩

이 기문은 20×40cm 크기의 간소한 목판에 모두 98자가 적혀 있는 墨書銘이다. 위의 <佛紀二千九百七十四年三月日記 緣化秩> 墨書銘 옆에 나란히 붙여져 있다.



<그림 7> 佛紀二千九百七十四年三月日記 목서명

緣化秩 佛紀二九七八年 比丘金靄山 黃覺玄 金香谷 趙雪芭 沙彌金錫天 安炳浩 負木 金龍雲 化主 金微妙華 梁萬善華 朴金蓮華 金直德華 金初玄華 韓太平心 李大覺心 尹金輪 月 徐菩提心 木手 韓仁珪 金在坤 魯判守 張龍洙 韓慶潤 李德伊 鄭方牛

여기에 적힌 ‘불기 2978년’은 서기 1951년에 해당한다. 서문이 없고, 이름은 比丘, 沙彌, 負木, 化主, 木手 순으로 기록되는 등 일반적인 서술 순서에서 벗어난다. 또한 7명의 민간공장이 적혀 있어서 소규모 공사가 있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다만 주요 구조부재나 가구부재는 그대로 둔 채 지붕 번와나 단청과 같은 소규모 공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5. 현존 건물의 건립연대와 공포의 변개시점

5-1. 현존 건물의 건립연대

앞서 4건의 목서명이 발굴되기 전까지 대응전은 金邦翰의 「長安寺大雄殿記」(1660년)에 근거해서 효종 5년(1654)에 건립된 것으로 주장되어져 왔다. 즉, 金邦翰의 글 중에

順治甲午 有元正者 欲新前功 袖一券 而行乞 萬程經營 丁酉斷手 戊戌千礎鰲浮 萬楹暈飛 巋然法堂 不日告成 釘而裝之者 禪學其人也 瓦而蓋之者 學能其師也 覆而彩之者 沖默是也 造成佛像者 印岑是也⁶⁾

라 하여 갑오년(효종 5년, 1654)에 원정이 공사비 화입에 나서고, 정유년(효종 7년, 1657)에 공사를 시작해서 무술년(효종 8년, 1658)에 완공했으며, 입매, 개와, 단청, 불상은 각기 禪學, 學能, 沖默, 印岑 등이 맡았다는 내용이 그 근거였다.

이러한 건립연대는 필자에 의해서 발굴된 <順治十三年記 종도리 墨書銘>의 정유년, 즉 효종 7년(순치 14, 1657)에 상량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다만 <順治十三年記 종도리 墨書銘>에서는 상량한 해를 순치 13년 정유년이라 했는데 이는 착오인 것 같다. 정유년은 순치 13년이 아니라 그 다음 해인 순치 14년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1637년 <丁丑約條> 이후부터 사용된 청나라 연호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6) 金邦翰, 「鰲亭先生逸稿」(1911)의 「長安寺大雄殿記」(1660년), “順治 甲午년에 元正이 지난 공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시주책자 한 권을 소매 자락에 넣고 만리길을 다니며 경영했다. 丁酉년에 시작해서 戊戌년에 준공하니 천 개의 초석이 자라가 떠받치는 듯하고 만 개의 기둥은 햇무리처럼 나는 듯 하여 높다란 법당이 不日 내에 이뤄졌는지라. 쇠못을 치고 꾸민 이는 禪學이란 사람이요, 기와를 덮은 이는 學能 스님이며, 단청하고 칠한 이는 沖默이란 분이요, 불상을 조성한 이는 印岑이란 분이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명나라 연호인 崇禎을 혼용하던 사정으로 청나라 연호에 대한 착오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떻든 金邦翰의 「長安寺大雄殿記」에 적힌 건립연대는 <順治十三年記 종도리 墨書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김방한이 언급한 공사 관계자들도 목서명이나 불상 服藏記文인 <慶尙左道蔚山南面佛光山張安寺佛像施主秩目>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즉, 목서명에는 대웅전 불사의 원을 세운 元正이 大化土로 기록된다. 입배공역 책임자인 禪學은 목서명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先頭와 三綱으로 기록되는 禪竺을 잘못 기재한 것 같다. 또한 蓋瓦 공역책임자인 學能은 범당개와화주로, 단청을 맡은 沖默은 별좌로 기록된다. 특히 불상조상을 맡은 印峯은 先頭로 기록되는데, 그는 불상 복장기문에서는 화주로 기록된다. 두 기록과 함께 복장기문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간에 전해지던 건립연대는 목서명과 대조를 통해서 순치 14년, 효종 8년(1658)으로 확정된 것이다.

한편 1658년의 장안사 대웅전 건립을 전후해서 동남단 해안지역의 여러 사찰들도 임진왜란 피해의 복구를 위한 불전 중창공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예컨대 임진왜란 때 소실된 通度寺 대웅전은 인조 23년(1645)에 복구되었고, 梵魚寺 대웅전은 효종 9년(1658)에, 雲水寺 대웅전은 현종 1년(1660)에 각각 복구되었다. 그

런 점에서 장안사 대웅전의 복구는 임진왜란 직후 이 지역의 호전된 경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원래 이 지역은 신라 지증왕 6년(505) 주군 현제를 실시하면서 스산하고 쇠잔한 변방이란 뜻의 甲火良谷縣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다. 이후 태종 13년(1413)에 機張縣으로 승격되지만 임진왜란을 계기로 폐현되면서 동래, 울산, 양산 등에 분산 병합될 정도로 피해가 컸다. 그러다가 광해군 9년(1617)의 復縣을 거쳐 효종 4년(1653) 현감 강유후의 상소로 다른 지역에 분산되었던 지역을 환속 받게 된다.⁷⁾ 장안사 대웅전이 건립될 시점이다. 그 무렵의 기장이 전란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명실상부한 영읍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무렵 불교계의 입지도 임진왜란 때의 의승군 활동으로 사뭇 향상된 상태였다. 여기다가 이 지역 민중들로서는 전란으로 희생된 친족들의 명복을 빌고, 살아남은 이들의 현재 기복을 위해서 불교신앙에 기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선지 <順治十三年記 종도리 墨書銘>에는 당시 기장의 유력 인사들의 망라된 듯 이례적으로 많은 수의 시주자, 화주, 공역자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당대의 巨儒가 사찰 창건기문을 썼을 것이다. 장안사 대웅전의 문화재적 가치는 물론이고, <順治十三年記 종도리 墨書銘>의 사료적 가치 또한 적지 않음을

[표 2] 장안사 대웅전과 인근 사찰 주불전의 주간 치수 및 용적 비교

구분	중창 연도	정면·배면			좌측면·우측면			곡척범위 (평균곡척)
		어칸	우협칸	좌협칸	어칸	우협칸	좌협칸	
장안사 대웅전	1658	4,100 (1.04)	3,800 (1.04)	3,750 (1.03)	2,550 (1.05)	2,530 (1.04)	2,550 (1.05)	1.03~1.05 (1.04)
범어사 대웅전	1658	4,566 (1.00)	3,492 (1.05)	3,546 (1.06)	5,342 (1.04)	2,260 (1.07)	2,154 (1.02)	1.00~1.07 (1.04)
범어사 일주문	1694	2,820 (1.04)	2,510 (1.04)	2,491 (1.03)	-	-	-	1.03~1.04 (1.04)
운수사 대웅전	1683	2,920 (1.07)	2,360 (1.11)	2,350 (1.11)	2,830 (1.04)	1,610 (1.06)	1,670 (1.10)	1.04~1.11 (1.08)

[표 3] 장안사 대응전의 공포부재 치수 및 용척

구분	주두		소로		장혀		곡척범위 (평균곡척)
	폭	고	폭	고	폭	고	
치수	560 (1.03)	240 (1.00)	190 (1.05)	130 (1.00)	120 (1.02)	310 (1.02)	1.00~1.05 (1.02)

알 수 있다.

5-2. 중, 개수와 변개 가능성

지금의 대응전은 주간에 비해서 주고가 높아서 고준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부재 치수가 크다. 문틀 등의 부재 맞춤도 제비추리맞춤이나 반연귀맞춤과 같은 고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팔작지붕에 화려한 공포를 짜 올리는 등 한눈에도 소규모 사찰의 주불전 치고는 공력을 크게 기울인 건물임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정면과 배면의 공포 형상이 다르고, 좌, 우측면에는 보간포가 짜여지지 않는 등 공포 구성의 완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건물은 1658년 중창 이후 어느 시점에 변개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즉, 주요 구조부재와 가구부재는 유지한 채 공포 부분을 당시에 유행하던 범식으로 고쳤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까지도 그 변개의 시점과 정도는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다행히 필자 등에 의해서 발굴된 묵서명은 이러한 상황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먼저 <乾隆八年記 宗道里 반침장혀 墨書銘>에서 효종 8년(1658)의 중창 이후 100여 년이 지난 시점인 영조 20년(1744년)에 지붕 부분의 수리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묵서명의 글자 중에 ‘口椽重修’라 한 구절의 한 글자는 여전히 해독이 불가능하지만,⁸⁾ 구체적으로 서까래를 수리했다는 내용이다. 1744년에 지붕 부분을 철거하고 서까래 등을

교체하는 공사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묵서명은 간략한 내용으로, 일정한 형식이 없으며, 묵서된 위치가 종도리 받침장혀 옆면이란 것도 대규모 공사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기록된 공장의 수가 4명에 불과한데, 그 무렵 다른 대규모 공사와 비교하면 그 수가 상당히 적다. 결론적으로 1658년 중창 때 이뤄진 건물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도리 이상의 부재에 대한 교체, 수리가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조부재 등 주요 골격이 1658년 중창 때 그대로인 점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1600년대 후반에 건립된 인근 사찰 불전건물의 영조척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도 기본 골격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방증된다. 예컨대 <표 2>에서 보듯이 주간 치수의 영조척은 같은 해에 건립된 범어사 대응전(1658)과 그 40년 뒤에 건립된 범어사 일주문(1694) 등과는 동일한 1.04곡척을 보인다. 조선 시대 영조척의 범위와 일치하는 셈이다. 다만 운수사 대응전(1683)은 용척 범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후의 중건 때 건물 규모에 변개가 이뤄진 때문일 것이다.

특히 범어사 대응전 등이 1.00~1.07곡척 범위로서 편차가 큰 데 비해서 장안사 대응전은 정면, 배면, 좌·우측면이 1.03~1.05곡척 범위 내에 있어서 편차가 극히 적다. 1658년 중창 때 이 지역에서 통용되던 영조척이 정확히 적용되었고, 그때 형성된 規矩가 그 위치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공포의 형상은 인근 사찰 주불전의 것

7) 『機張郷校誌』, 機張郷校, p.255, 2006

8) 해독 불가능한 글자를 ‘大’로 읽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있다. 이를 따른다면 大椽, 즉 큰 서까래가 된다.

들과 사뭇 다르다. 표 3과 같이 공포에 적용된 용척은 주간 치수 등의 용척과 다소 차이가 난다. 즉, 장안사 대웅전의 주간에 적용된 용척 평균이 1.04곡척이며, 주고는 1.04를 보인다. 이에 반해서 공포부재는 1.00~1.03곡척 범위로서 평균치는 1.02곡척을 보인다. 이처럼 구조부재와 공포에 적용된 영조척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부분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공장에 의해서 조성되었다는 단서가 된다. 말하자면 공포 부분의 변개 시점으로서 일단은 1744년의 중수 때로 가정할 수 있고, 또한 1947년이나 1951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1947년이나 1951년의 목서명은 목판에 간략히 기록한 문건이다. 특히 1947년 목서명에는 공장들 이름이 전혀 기록되지 않는 만큼 공포를 크게 교체할 정도의 공사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큰 시점은 1744년과 1951년이겠지만, 공포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공사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5-3. 공포 부분의 변개 시점

공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상당 부분을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포식의 경우 주두 위에 겹쳐지는 첨차와 소로, 장혀 등으로 구성된 공포는 대들보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들보 이상의 부재, 즉, 각종 도리와 종보, 종대공 등 지붕가구 부재들을 해체한 후에나 가능하다. 이러한 공사방식은 현행 문화재 보수공사 때처럼 일정한 공사비가 제대로 마련되어 일시에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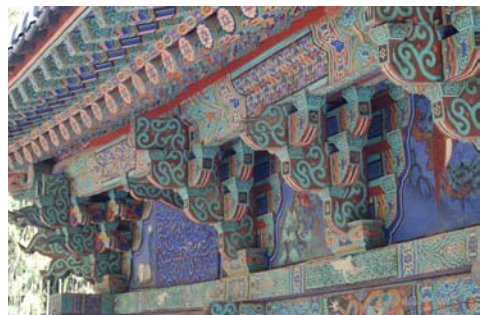
그러나 어려운 사찰 사정을 감안하면 공포만의 교체를 위해서 대들보 이상 부재들을 해체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만 대들보 등을 해체하지 않는 한에서 지붕을 수리

할 때 공포를 새로 교체하는 경우는 더러 있었다. 예컨대 기와와 보토, 적심 등을 들어낸 후 서까래와 부연 만을 해체 한 후 드잡이공법으로 대들보를 제공 높이 이상을 올린 후 공포를 교체하는 식이다. 물론 현행 문화재 보수공사에서 이러한 방식은 사용되지 않지만, 예전 사찰 공사에서는 간혹 사용되기도 했다. 즉, 서까래를 수리할 때 공포의 교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744년의 중수와 1951년의 수리 때 지붕 부분에 대한 공사가 이뤄졌는지를 따



<그림 8> 장안사 대웅전 공포(정면)



<그림 9> 장안사 대웅전 공포(배면)

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1744년 중수공사는 ‘□椽重修’라 하여 글자 하나는 해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의 주장대로 大椽을 수리했

[표 4] 장안사 대응전과 인근 사찰 주불전의 공포 비교도

구분	정면		배면		측면	비고
	주심포	보간포	주심포	보간포	주심포	
장안사 대응전						안초공이 있고, 측면과 배면협간에 보간포 없음
범어사 대응전						안초공이 없고 주심첨차는 2개 설치
범어사 일주문						안초공이 없고, 내출목이 없음
운수사 대응전						안초공이 있고, 배면공포가 다포계

다고 가정하면, 도리 이상이 해체되고, 천장과 대들보가 노출된 상태였을 것이다. 당시 공사 때 공포의 변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1951년 묵서명은 30cm각 크기의 목판에 써서 장혀 측면에 붙여 놓은 것이다. 만일 천장 이상을 해체하고 공포를 교체했다면 그 사실을 제대로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구 6명, 부목 1명, 화주 9명, 목수 7명의 이름만 적혀 있을 뿐이다. 실제로 내부 천장 속 부재들은 모두 오래 전 것들로서 박락이 심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부재들은 1951년 수리 때 새롭게 교체된 것이 아니고, 공포 부분도 변개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공포 부분은 大椽을 중수했던 1744년에 변개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5-4. 여타 사찰의 불전 공포와 비교

공포의 형상과 구성방식은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인근 사찰의 다포계 건물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조성 시기나 특성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표 4>와 같이 범어사 대응전(1658)의 공포는 외3출목, 내4출목으로 맞배집의 특성상 전, 후면에만 공포를 짜고 보간포는 어간에 3구, 좌, 우 협간에는 2구를 포착했다. 살미의 형태도 외부는 3제공까지 강직하게 돌출되며, 4제공은 새부리처럼 뾰족하게 만들고, 초제공과 2제공 아래에 화두자를 만들었다. 내부의 살미는 3제공까지는 교두형으로, 4제공은 주심포에서는 보아지 형태로 대들보를 받게 하고, 보간포에서는 三岔頭形으로 만들었다. 안초공이 없고, 첨차는 출목첨차나 주심첨차 모두 양단 마구리를 직결한 교두형이며, 주심첨차는 소첨, 대첨, 그리고 3단 째는 주심장혀를 걸었다.

범어사 일주문(1694)은 일주문의 특성상 출목은 외3출목만 형성되며, 각 주간에는 보간포를 1구씩 올렸다. 초제공에서 3제공까지는 양서형태로 살미가 앞으로 나오다 궁글러 올라가

면서 반곡되는 형상이다. 마구리는 초제공의 경우 사절되며, 2, 3제공은 직절되는데, 특히 3제공은 살미의 하단을 세 번 궁글려 접어 올렸고, 화두자를 새겨 놓았다. 첨차는 양단 마구리를 직절하고 하단을 궁글린 교두형이며, 주심첨차는 소첨, 대첨, 그리고 3단 째는 주심장혀를 걸었다.⁹⁾

운수사 대웅전(1683)은 익공계 주심포식이거나 배면에는 다포계의 살미가 남아 있어서 원래는 온전한 다포식으로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배면 주심포는 외2출목에 내부는 보아지로 만들었다. 살미의 형태는 범어사 일주문과 흡사하게 양서형이며, 마구리는 초제공과 2제공은 사절되며, 하단에는 화두자를 새겨 넣고, 3제공은 三岔頭形을 만들었다. 첨차는 양단 마구리를 직절하고 하단을 궁글린 교두형이며, 주심소첨, 대첨, 그리고 3단 째는 주심장혀를 걸었다.

이에 반해서 장안사 대웅전은 정면의 각 주간에 보간포를 1구씩 올렸고, 배면은 어칸에만 보간포 1구를 올렸으며, 좌, 우측면에는 보간포를 짜지 않았다. 살미의 형태는 정, 배면이 다른데, 정면의 경우, 외부로는 2출목을 내고, 내부는 한 몸체처럼 보아지를 형성했다. 초제공에서 3제공까지 형상이 제각각인데, 초제공은 하단을 몇 번 궁글려서 앞으로 나오다 살미 끝이 아래로 향하다가 곧바로 위로 치켜들게 했다. 2제공은 하단의 궁글림이 다소 적지만 살미 끝은 초제공과 흡사하게 위로 치켜들게 했다. 3제공은 익공을 두 개 겹친 것처럼 두 갈래로 치켜든 형상이다. 첨차도 주심첨차는 양단 마구리를 직절하고 하단을 궁글린 교두형이며, 출목첨차 3개는 모두 양단을 사절하고 하단은 S자형으로 궁글렸다. 또한 주심첨차는 소첨, 중첨, 대첨을 중첩해서 봉두를 조각

한 보빨목을 받게 했다. 따라서 범어사 대웅전처럼 3단 째에 장혀를 걸지 않고 대첨을 걸은 탓에 공포벽이 여느 건물에서보다 넓고 높다. 그래서 측면의 경우 주심포 사이에 주심대첨이 들어설 정도의 폭이 형성되지 못해서 보간포를 두기 어렵게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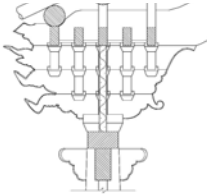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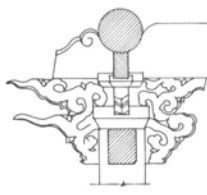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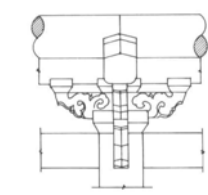
배면의 경우는 어칸에만 보간포를 1구 짜서 올렸으며, 외2출목, 내2출목으로 제공은 안팎이 같은 형상이다. 즉, 살미는 촛가지를 만들지 않고 안팎의 양단 마구리를 직절하고 하단은 궁글린 교두형이다. 첨차도 주심첨차나 출목첨차가 모두 양단 마구리를 직절하고 하단을 궁글린 교두형이다. 주심첨차는 정면과 같은 식으로 소첨, 중첨, 대첨을 중첩하고 그 위에 대들보를 받게 했으며, 주심장혀는 걸지 않았다.

이처럼 정면과 배면, 측면의 공포 구성이 다른 것은 1744년의 수리 때 이뤄졌을 것이다. 즉, 그 무렵에 지붕을 수리하면서 당시에 유행하던 공포형식을 채용한 것이다. 다만 조선후기의 많은 건물에서 보듯이 시각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정면은 제대로 구성하되, 사찰의 조영여건이 어려울 때 측면이나 배면은 소략하게 구성하는 것은 흔히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수사 대웅전처럼 정면은 당시에 유행하던 공포로 교체하고 배면 등은 옛것을 그대로 두기도 해서 정면과 배면, 측면이 제각각인 경우도 많았다.

어떻든 장안사 대웅전의 공포는 정면과 측면의 경우는 수리 당시의 유행을 따라 새로 짜올린 반면, 배면은 극히 소략하게 취급한 결과이다. 특히 정면과 측면 공포의 세장하고 반곡이 큰 살미의 형상이나 안초공이 형성된 점, 그리고 정면 공포의 내부에 보아지가 형성된 것이 1658년의 중창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새로 만들어졌음을 방증한다. 다만

9) 文化財研究所, 『韓國의 古建築 -16호』, pp.28-81, 1994

[표 5] 살미와 첨차 형상의 유사한 사례

장안사 대웅전(1658)	수덕사 대웅전(1378)	서울 문묘 존경각(1772)	서울 문묘 존경각(1772)
			

배면과 측면 내부 살미가 교두형인 점, 정면 살미에 복잡한 연봉형이나 연화형 초각이 없는 점, 운수사 대웅전에서 보는 익공형 쇠서가 사용되지 않는 점에서 그 조성 시기는 조선말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즉, 변개 시점으로 점찍히는 1744년과 1951년 중에서 1744년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면 외부로 돌출된 초제공과 2제공 살미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특히 그 이전의 경우로서 살미가 유사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다만 <표 5>에서 보듯이 쇠서의 뿌리 형상만을 본다면 수덕사 대웅전이나 서울 문묘 존경각 등의 살미의 윤곽이 약간 비슷하다. 그리고 출목첨차의 경우 고려 때의 수덕사 대웅전을 비롯한 주심포 2형식 건물이나 이후 조선시대의 익공식 건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식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런 유사성만으로 장안사 대웅전의 공포구성이 수덕사 등과 같은 계통이라거나 그 조성 시기가 조선중기 이전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건물을 수리할 때 공사 주관자가 다른 건물에서 보았던 형식을 그대로 모방한 결과일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공포 부분의 변개 시점은 1658년 중창 이후 세 차례의 수리 중에서 1744년 중수 때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당시는 지붕을 해체하는 공사였고, 따라서 공포를 교체하는 것이 비교적 쉬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든 장안사 대웅전의 공포가 변개된 시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후 보다 구체적인 공사기록이 발견된다면 공포를 비롯한 여타 부분에 대한 변개 시점이 밝혀지고, 이에 따라 이 건물의 문화재적 가치도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6. 맺는말

그간 장안사 대웅전의 건립연대는 오정 김방한이 쓴 「장안사대웅전기」에 근거해서 효종 8년(1657)에 건립되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 기문은 1660년에 작성된 간접사료인데다 공포구성이 중창 이후의 형식인 탓에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 필자 등에 의해서 실측작업이 이뤄지고, 종도리 하단의 묵서명을 비롯한 4건의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정확한 건립연대가 확인되었다.

4건의 묵서명은 順治十三年記 宗道里 墨書銘(孝宗 8년, 1657), 乾隆八年記 宗道里 받침장혀 墨書銘(英祖 20년, 1744), 佛紀二九百七十四年三月日記 緣化秩(1947년), 그리고 佛紀二九七八年記 緣化秩(1951년)이다.

먼저 <順治十三年記 宗道리 墨書銘>에서는 효종 7년(순치 14, 1657)에 상량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다만 정유년은 순치 13년이 아니라 이듬해인 효종 8년(1657)에 해당되고,

따라서 완공연도는 효종 9년(1658)으로 확정된다. 이는 김방한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乾隆八年記 宗道里 받침장허 墨書銘>(英祖 20년, 1744)에서는 서까래를 수리하는 중수공사가 이뤄졌음이 확인되었다. 공장수가 4명에 불과해서 대규모 공사는 어려웠을 것이지만, 공포의 형상 등을 감안하면 지금의 공포구성은 당시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佛紀二九百七十四年三月日記 緣化秩>(1947년)과 <佛紀二九七八年記 緣化秩>(1951년)은 모두 소략한 내용이고, 공장은 기록되지 않거나 몇 명에 불과해서 소규모 공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물의 주요 구조부재나 가구부재는 1658년 중창 때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공포는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인근 사찰의 불전들과 상당히 다르다. 또한 다포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보간포를 두는 방식이나 위치, 살미의 형상 등이 정면과 배면, 측면에서 각기 달라서 이후의 수리공사 때 공포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포의 변개시점은 발굴된 목서명들의 문장 구성이나 내용에서 <乾隆八年記 宗道里 받침장허 墨書銘>이 작성된 영조 20년(1744) 중수공사 때로 추측된다. 공포의 형상도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유사 사례를 찾기가 어렵지만, 안초공이 사용되고, 살미의 형상은 범어사 대웅전의 양서형보다 더욱 세장하고 곡률이 심해서 이보다 더 후대의 것임을 알 수 있는 반면, 화려한 연봉형이나 연화형 살미가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조선 말기로까지 내려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1744년 大椽 등 지붕을 수리할 때 당시에 유행하던 법식을 채용하고, 사찰의 어려운 조영여건 등에 맞추다 보니 측면과 배면은 소략하게 꾸몄을 것이다.

요컨대 공포의 변개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

은 1657년 중창 때 모습 그대로이고, 문선 등에서는 고식을 지니고 있다. 비록 공포구성의 완결성은 부족하지만 변개 시점도 짐작할 수 있는 만큼 건축사적으로는 중요한 유구라 할 수 있다. 이후 여타 부분의 변개 시점이나 공사규모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문헌 발굴을 통해서 정확히 규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金邦翰, 『鰲亭先生逸稿』, 영인본, 1911
2. 張起仁, 『韓國建築大系 V -木造』, 普成閣, 1997
3. 李達勳, 「翼工系 栱包의 發生 및 變遷過程 研究」, 충남대 박론, 1989
4. 機張鄉校, 『機張鄉校誌』, 2006
5.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9
6. 釜山光域市 金井區廳 『梵魚寺 大雄殿 修理工事 報告書』, 2004
7. 文化財研究所, 『韓國의 古建築 -16호』, 1994
8. 徐致祥, 「雲水寺 大雄殿 調査報告書」, 2008, 부산광역시
9. 徐致祥, 「長安寺 大雄殿 調査報告書」, 2009, 부산광역시
10. 徐致祥, 「朝鮮後期 梵魚寺 僧人工匠의 東萊地域 造營活動」,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건축역사연구』 Vol 35, 2003. 9

접수(2010. 2. 16)

수정(1차: 2010. 3. 30)

게재확정(2010. 4. 5)

A Study on the Constructional Records and Architectural Type of *Jangan - sa*'s *Daeoong - jeon* in *Gijang*

Seo, Chi-Sang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Jangan-sa is one of the Buddhist temples in the southeastern seaside district, which was restored directly after the termination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Recently we could find out 4 records on the constructions of *Daeoong - jeon* in *Jangan-sa*. These are <*Jondori - Mookseo-myeong*> written in the 12th year of Emperor *Soonchi*, <*Jondori - Bachim - janghyeo Mookseo - myeong*> written in the 8th year of Emperor *Geonryung*, <*Mookseo - myeong*> written in 1947 Buddha Era and <*Mookseo - myeong*> written in 1951 Buddha Era.

Until the revelation of these records, the present building has been considered to be built in 1657, the 8th year of King *Hyojong*, based upon *Kim Bang - han*'s 「*Jangan - sa Daeoong - jeon - gi*」. Because the *gongpo* of *Daeoong - jeon* was finished with the type of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we doubt of the correction on it's building date, just in the year of 1657.

Now we are able to examine the building date and the alteration date, based upon the actual measurement and constructional records of *Daeoong - jeon*. So to speak, the building destroyed in 1592, had been restored in 1658, the 9th year of King *Hyojong* and was reconstructed in 1744, the 20th year of King *Youngjo*. Afterward it was repaired on small scales in 1947 and in 1951.

Though this building is considered to be lack of the completeness owing to the later alterations, it is still worthy heritage for the research on the building type at the directly after the termination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keywords: *Gijang Jangan - sa*, *Daeoong - jeon*, Constructional Record, *Mookseo - myeong*, *Sangryang - moon*, Building Date, Alteration Date
